

46대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학생회 선거
4대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여학생회 선거
2009년 예비역 학생 협의회장 선거

선거 일정

<선거 유세 기간>

2008년 11월 17일 (월) - 2008년 11월 25일 (화)

<투표기간>

2008년 11월 26일 (수) - 2008년 11월 27일 (목)

신과대학 투표구는 신과대학 1층 로비에 차려집니다.
신과대학 투표구에서 총학생회-총여학생회 투표도 함께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표를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46대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학생회 - 4대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여학생회 - 예비역학생협의회장 선거>

공동선거정책자료집

<신과대학 학생회 출마 선본>

함께 부르는 아름다운 선율 칸타빌레

정후보 : 최하영 (신학 07)

<신과대학 여학생회 출마 선본>

神나는 그곳, 언니네 방

정후보 : 임이랑 (신학 05)

당당하게 당신을 높이는 U g高r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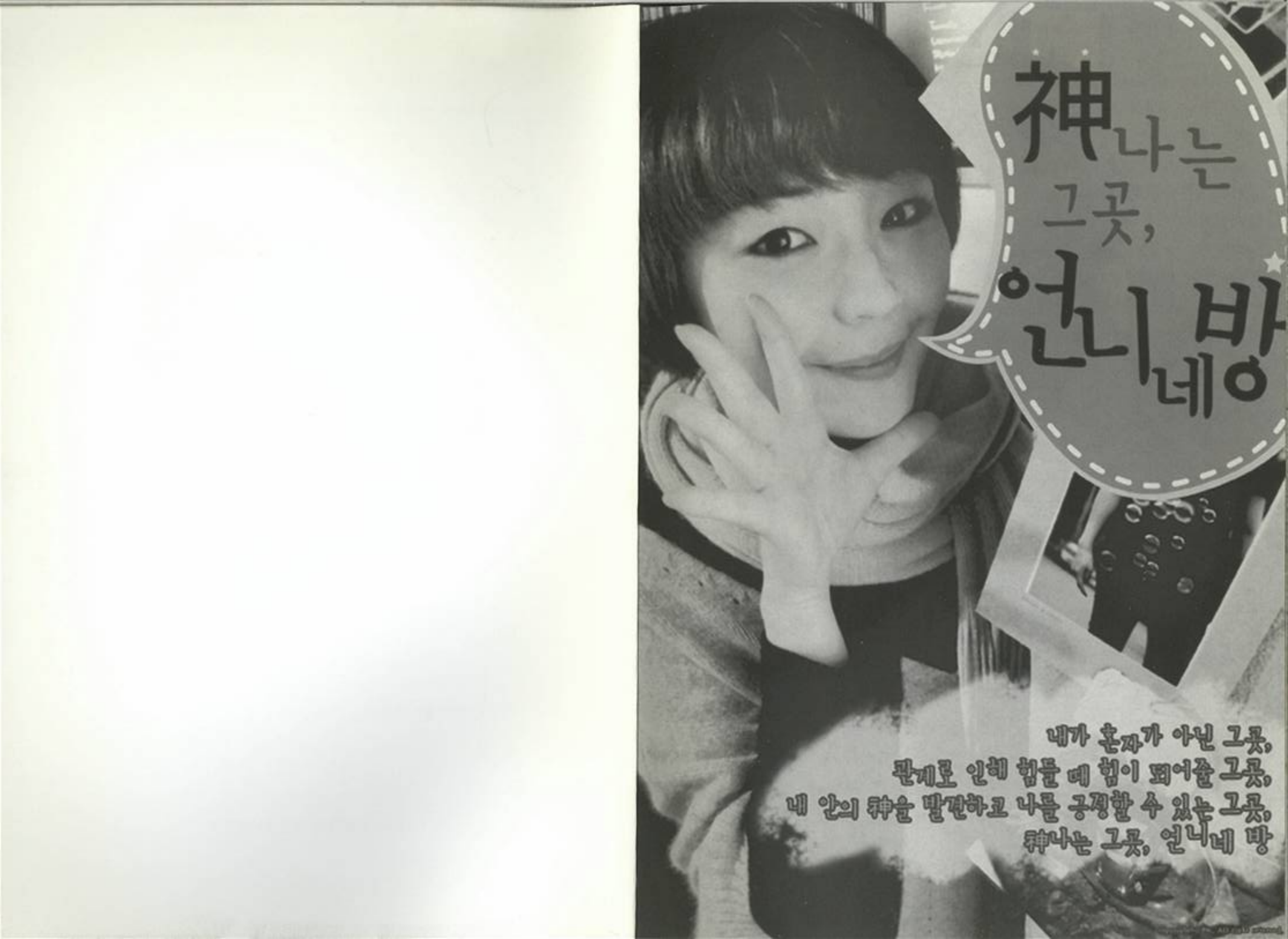
정후보 : 신나라 (신학 06)

부후보 : 김소영 (신학 06)

<예비역 학생 협의회 출마 선본>

한 대환 (신학 04)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선거관리위원회



神나는
그곳,

언니네방

내가 혼자가 아닌 그곳,
관계로 인해 힘들 데 힘이 되어줄 그곳,
내 안의 神을 발견하고 나를 긍정할 수 있는 그곳,
神나는 그곳, 언니네 방



김임이랑 (신학과 3학년)

2005년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입학
신과대학 동아리 가미, 물구나무, 알파와오메가
연세신학학술연구회 활동

2006년 신과대학 알파와오메가 부회장
제2대 신과대 여학생회 선거 <다.달.> 선분원

2007년 제2대 신과대 여학생회 <다.달.> 집행부
제20대 총여학생회 선거 <뜸을 누비다> 선분원

2008년 제10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자원활동
제4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자원활동
제10회 여성제 <Feminism is for Everybody> 기획단



‘여자가 신학과 뭐하러 오나?’

2000년도 초반이지만 해도 여학생들은 이런 질문을 종종 들곤 했다. 목회자와 신학자는 모두 남성이었고 여성이 목회를 한다는 개념 자체가 생소했다. 신학과에 들어오는 여학생들은 점점 늘어났지만 아무도 이들을 목회나 신학을 할 학생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돌 모델이 부재한 상황에서 신학과의 여학생들은 저마다의 길을 만들어나가야만 했고 학내에서 여학생들은 조용히 사라져갔다.

대부분의 동아리 대표들은 남학생이었고, 많은 문화들이 남성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학번이나 나이에 맞추어 성곽 하계 서열이 만들어졌으며 동아리의 위클리에서는 여학생들에게 불편한 분위기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2005년 가을, 현재 신학관으로 이사를 하면서 여학생유계실(이하 여휴)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다. 여휴 설치에 이미 협의 되어있었으나 언어우드국제학부와 건물을 함께 쓰게 되면서 공간부족문제가 대두되었고 여휴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여학생들은 자신들의 권익을 대표할 공식적 기구가 필요함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다.

여학생들은 학생사회의 주요 구성원으로서, 신과대학의 운영에 자신들의 목소리를 공식적 기구를 통해 내고자 하였다. 단과대학 최초로 여학생회를 설치할 것을 개강총회에서 발의하였고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신과대학 여학생회는 통과되었다. 그리고 2006년, 제1대 여학생회가 태어난다.

공식적 대표기구가 생긴 이래로 여학생회는 신과대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모든 정책에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2008년 10월, 연세대학교 확대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등록되었다. 또한 여학생회는 흡여졌던 신과대학 여학생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여학생 네트워크를 만드는 데 힘쓰고 있다. 신학하는 여성으로서의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는 많은 여학생들에게 여학생회는 새로운 정체성을 만드는 중요한 통로가 되며 대표자활동을 하며 여성리더로서의 자질을 기르는 장이 되고 있다.

1. 여신은 신나게 논다

(내가 혼자 아닌 그곳, 언니네 방)

- 여학생들이 함께 이야기하고 지지하며 공감하는 공간 만들기
- 여학생 MT와 주기적인 모임 가지기
- 여학생회실과 여학생휴게실을 활성화하기
- 여학생 소식지, 소책자 등을 발간, 여학생 축제 기획

2. 여신은 모든 것을

살아나게 한다

(예코 페미니즘, 모든 것을 살려내다)

- 예코 페미니즘(생태여성주의)을 이야기함으로 여성주의적으로 자연을 바라보기
- 담론을 이슈화시키고 실천하기
- 생태적 학생자치활동을 만들기

3. 여신은 금기를 깬다

(여자, 성서 밖으로 나오다)

- 여성으로 신학을 한다는 것에 대해 함께 고민을 함께 하기
- 여성신학에 대한 강연이나 세미나 진행하기
- 여학생회실에 여성신학 도서관 만들기
- 여성신학 과목 개설을 요구하기

4. 여신은 정의롭게 살림한다

(함께 맞는 비)

- 예수의 정의로운 사랑 실천하기
- 신학관의 노동자분들과 만나기
- 장애여성, 이주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등과 연대하기

1. 여신은 신나게 논다

신학과에는 적지 않은 여학생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는 서로 몇 명이나 알고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힘들고 외로울 때 속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은 몇 명이나 있나요? 갑자기 놀고 싶을 때 불러낼 사람을 찾다가 쓸쓸히 집에 돌아간 적은 없으신가요?

〈언니네 방〉에서는 여러분이 기쁠 때나 슬플 때, 힘들고 외로울 때 기대할 수 있는 친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함께 모여 밤새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 와플과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자신의 관심사를 나눌 수 있는 시간, 축제를 벌이며 자신의 끼를 발휘할 수 있는 시간 등을 마련하여 여학생들간의 네트워크 형성의 토대가 되는 〈언니네 방〉을 만들고자 합니다.





2. 여신은 모든 것을 살려낸다

광우병 쇠고기, 멜라민 과자, GMO식품, 쥐머리 새우깡...

당신이 먹고 있는 음식은 안전하십니까? 화학첨가물이 들어가 있는지, 중국산은 아닌지, 음식의 정체를 알지 못해 불안하지는 않으셨나요?

저희 〈언니네 방〉은 종고, 깨끗하고, 공정한 먹거리를 위해 지역농과 연계하여 시험 기간 간식나눔이나 축제기간을 통해 유기농 먹거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또한 대동제, 새내기 OT 등에서 일회용품 쓰지 않기, 대안생리대 만들기 등을 통해 생태여성주의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3. 여신은 금기를 깬다

신학과에 다닌다고 하면 목사님이 될 것이냐는 질문을 받기보다는 전도사나 사모가 되려고 신학을 공부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전히 '식사 봉사는 여성, 차량 봉사는 남성' 과 같이 이분법적인 성역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부장적인 교회 분위기 속에서 여성으로 신학을 한다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민을 하기 위해서는 여성신학적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강연이나 세미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또한 여학생회실에 여성신학 도서관을 만들고 충분한 사전조사를 거쳐 여성신학 과목 개설을 논의하겠습니다.

4. 여신은 정의롭게 살림한다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예수가 선포한 정의로운 사랑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특히 신학관에서 일하고 계시는 노동자분들의 휴게실을 찾아가 이야기도 나누며 멀지 않은 미래인 여성노동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또한 장애여성, 이주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등과도 연대하고자 합니다.



1 “다시 태양이 되기 위하여”

아직 합격여부를 알지 못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면접을 준비하던 04년도 겨울, 어렵פות이 기억나는 장면이 있다. 두 강의실에 예비 새내기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앉아있었는데, 선배들로 보이는(연대 잠바를 입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남자들이 뒤에 서서 집게 손가락으로 한 명 한 명 세고 있었다. 처음에는 수험생 인원을 세는 줄 알았는데, “야 여자 몇 명이야? 올해는 많이 좀 들어와야 할텐데...”

하며 킁킁대는 목소리를 들으니 그 애아림이 불쾌해졌다.

이 장면은 입학 후 하고서도 이어졌다. “올해는 여자 몇 명이야?”가 선배들의 관심사였다. “총 13명 들어왔어요”라는 대답을 수없이 했던 기억이 난다. 그 질문이 매년 똑같이 이어지면서 더욱 확실해지는 것은 그것이 신대 내의 적은 여학우 비율을 우려하는 질문이 아니라 그들 표현대로 ‘분위기를 좀 화사하게 만들 수 있는’ 여학우들이 ‘적당히’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여학우들에게 기대되는 것은 기껏해야 그런 화사함이었기 때문에 같은 새내기끼리 나란히 앉아있어도 남자 새내기에게 돌아가는 질문은 “농구 좋아해? 어떤 음악 좋아해? 즐겨있는 책 분야가 뭐야? 신학과에 왜 들어왔어?” 식이고, 여자 새내기에게 돌아가는 질문은 “예쁘다. 머리길이가 굉장히 길다. 어디 살아? 시간이 늦었는데 안 들어가 봐도 돼?” 였던 것이다.

매년 약 60명의 새내기들이 신학과에 들어온다. 성비가 ‘유동적’ 이라고 하지만 새내기 여학우들이 채 20명도 넘지 못하는걸 보니, 그다지 유동적인 것도 아닌 듯 하다.

“신대에 여학우들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수적으로 지금보다 더 많아진다면 가부장적인 분위기를 친여성주의적인 공간으로 만드는데 함께 노력할 친구들이 생겨서 좋고 그들이 발산해낼 긍정적인 에너지들도 신대를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여성들의 숫자와 수요를 이기지 못해 신학과 내에도 현재의 여성신학동아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성신학’ 과목이 생겨날 것이고 교수님도 초빙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서는 가부장적인 분위기의 절정인, ‘아버지 하느님’만이 난무하는 신학 분야와 교회 내에서 성 평등한 세상을 노래하며 억눌린 여성들의 자아들을 함께 해방시키는 씨앗들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만 해도 가슴 뛰는 일이다!

* “다시 태양이 되기 위하여”는 여성신학과 연결의 아시아-여성 신학적인 제목을 인용하였다.

2 “여학생회”를 낳는 출산의 고통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신대 내에서 여성의 비율이 적다 보니 여학우들의 목소리를 모아서 발언할 만한 통로가 없었다. 여학우들의 입장을 대변할 사람이 신과대운영위원회에 참석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자, 여학생회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2006년 3월, 제1대 신대여학생회가 출범했다. 신대 회칙 수정을 위해 개강총회에서 여학생회가 거론되었는데, “왜 남학생회는 없나요?”, “여학생회는 여학우로만 구성되나요? 그러면 신대내의 공동체성에 균열이 생기게 되는 것 아닙니까? 남학우도 집행부로 받아주는 조건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등의 우문이 이어졌다.

신과대 여학생회는 소수자 여성들이 수업에서, 뒷풀이 자리에서, 동아리방 등에서 느끼는 소외와 억압적인 지점들에 대한 한풀이와 수다가 있는 자리이고, 성희롱이 농담으로 이어지는 것을 제어할 수 있는 대책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대안적인 문화를 창조해내는 자리이다. 끈적끈적한 타인의 시선으로 고통받아본 적 없고, 섹슈얼리티를 이유로 차별받거나 소외받고 당연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입장이 되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왜 그 소수자들만을 위한 모임이 따로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은 엄연한 2차 폭력이다.

그리고 남자들은 여자들끼리만 있으면 ‘남자’ 들이 있어야 될 것만 같은 생각인지 과잉배려를 하는 것이 몸에 배어있는 것 같기도 하다. 신과대에서 제2대 여학생회 <다담>에서 종강총회로 여학우들끼리 모여 식사하는 자리를 마련했을 때도 몇몇 남학우들은 “우웁.. 남학생들도 한번 하자! 종강파티! 암튼 여학생들은 좋겠네” “남학생은 전혀 들어갈 수 없는 자리인가ㅠ. 안타깝..” 다는 식의 리플을 달았다. 사실 남학우들은 자리를 부러 만들어주지 않아도 저들끼리 약속을 잘 잡아서 여우배들과 잘 만남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여학우들끼리의 연대 자리에 끼려는지 사실 이해가 잘 안된다. 그들의 질문은 자연스럽게 ‘왜 여학생유계실(여유)이 있어야 하는가’ 로 이어졌다. 신대에 있는 동아리에게 하나씩 주기도방이 모자란데 왜 굳이 ‘여학생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만들어야 하느냐, 그러려면 남학생 유계실도 만들어라 라는 식의 발언들이 오고갔다. 인원이 얼마 되지 않는 적은 규모의 단대이기 때문에 서로 친밀하다는 것이 우리의 토론을 가로막았다. 여성들이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실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들은 “우리가 남이가” 하는 목소리에 파묻히기 일쑤였다. 이 분위기는 신대와 같은 건물을 쓰고 있는 연더우드 국제학부도 다르지 않았는데, 심지어는 여유에 국제학부 남학우들이 계속 들어와서 여유 입구에 ‘여유의 필요성과 남학우 출입금지’ 를 써 붙일 정도였었다.



“우리가 남이가?” 하는 식의 관계 맺기는 ‘오빠’ 호칭에서 절정에 달한다. 새내기들이 들어왔을 때 처음 만나게 되는 사람들은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며 과잉친절을 베푸는 ‘오빠’ 들이다. 새내기 O.T에서든지, 수련회에서든지, 뒷풀이에서든지 스스로 망가져가면서까지 새내기들을 웃겨주고, 따로 만나면 밥에 후식까지 사주며 필요한 교재목록과 수강신청까지 챙겨준다. 경험을 더듬어보면 처음에는 새내기를 잘 챙겨주는 선배들의 배려에 감동했지만 그 배려에 내가 ‘너무’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서 주체적으로 무언가를 한다는 것에 무뎌져버렸을 때 문제가 발생했다. 한 학기 내지는 일 년이 지나고 난 뒤 그렇게 ‘전적인 배려’를 받지 않은 남자 동기들에 비해서 내가 턱없이 미숙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동아리에서도 막내이고 모임에서도 ‘꽃’으로만 대접받던 것에 익숙해져있던 것이 오히려 내 성장을 가로막는 무거운 돌이 되어 내 자아를 짓누르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 상황을 개인적인 문제라고만 생각했는데 주위에 나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동기와 후배들이 있었다. 그 때 우리는 그것이 모두 각자의 미숙함이라고만 치부하고 문제를 자기와 내부로 돌렸는데 함께 이야기하다보니 상황이 우리에게 이미 그렇게 ‘던져져’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가 처음부터 주체적인 자리를 거부한 게 아니라 애초부터 우리는 구조적으로 ‘배제’ 되었을 뿐이었다.

우리가 그렇게 깨달아가고 있을 무렵, 2006년 또 새내기가 들어왔다. 모든 것이 다시 반복되는

것이 눈앞에 보였다. ‘오빠’ 들의 배려는 또 다시 ‘새내기’에게 집중되기 시작했다. 작년까지 모든 배려와 관심을 받아왔던 새내기들은 소외감에 어쩔 줄 몰랐고, 그들에게 ‘오빠’ 들은 ‘헌내기’라는 단어로 일관할 뿐이었다. 이것이 구조적인 문제임을 인식하자 신대 일부 여학우들은 ‘오빠 안 부르기 운동’을 시작했다. 단순히 ‘오빠’라는 호칭만 쓰지 않는 것이 아니었다. ‘꽃’이었던 것에서 벗어나 ‘이름’을 되찾는 주체적인 작업이 이루어지는 순간들이었다. 신대 대다수의 여남 선후배 관계가 ‘오빠-동생’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의 그 운동은 여파가 컸다. 이러한 움직임은 신대 내 ‘오빠들’에게서 엄



Hula Hula

청난 분노를 사게 했으며 이 자리에서도 저 자리에서도 토론이 일어났다. “그래, 니네 오빠라고 왜 안하냐. 들어나 보자!” 라면서, 남자 선배들이 ‘오빠’ 호칭을 쓰지 않는 것에 대한 반감의 제일 큰 이유는 ‘멀게 느껴지니까’라는 이유였다. 그러나 오빠라는 말 자체가 이미 오빠-동생이라는 권력구조를 깔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편하고 평등한 관계맺음의 시작일 수 있는가!

주의하시라. ‘오빠’ 들의 관계맺음의 시작은 이런 식으로 시작한다.

“이름이 -라고 했나? 나는 O4학번이야. 새내기니까 말 낚도 되지? 편하게 오빠라고 불러.” 그 말은 사실 학번권력, 나이권력, 성별권력 모든 안 좋은 건 죄다 모아놓은 ‘농축액’이었을 뿐이었다. 학번이 ‘높고 낮다’는 개념, O4는 O5보다 ‘위에’ 있다는 전제. 나이가 많은 사람은 나이가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에게 말을 ‘함부로’ 놓아도 된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 등등의 결합체일 뿐이다.

길고 긴 대화 끝에 맺어진 건강한 관계 중에 소개하고 싶은 것은 ‘애칭’을 사용하거나 서로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시 시작된 관계이다. 그간 알아온 시간들이 있었지만, 호칭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서로 고민하는 과정에서 나는 ‘오빠’가 싫고, 상대는 ‘선배’라는 단어가 싫으면 함께 대안적인 관계 맺기를 하는 것이다. 그 때, 우리는 서로가 다시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었다.



내 몸무게는 ○ ○ kg

내 살이 본격적으로 찌게 된 원인 중 하나를 '고등학교 시절에 받은 입시 스트레스' 라고 진단하고 싶다. 입학하자마자 시작된 보충수업과 야자 때문에 나의 소중한 집은 여관 역할을 할 뿐이었고 학교에서 모든 끼니를 해결하던 나는 3개월 만에 10 kg이 찼다. 갑자기 살이 찌고 나니 배가 부른 느낌에 짜증이 나서 도저히 책상 앞에 앉아있기가 싫었다. 살이 찼다는 사실 때문에, 문제가 안 풀릴 때마다, 성적이 안 오를 때마다 먹는 걸로 스트레스를 풀었다. 먹을 때만큼은 행복했고 모든 걸 잊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대학 입학 후 1년이 지나고 결국 나는 사고를 쳤다. 지방분해 주사를 맞고 식욕 억제제를 드셨던 것이다. '지방분해 주사+식욕 억제제+굶기+운동' 두 달 패키지는 놀랍게도 7 kg 감량의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었다. 내 몸 안은 어떻게 되어 가는지 모르고, 몇 년 만에 가벼워진 몸무게 덕분에 나는 날아갈 것만 같았고 하루하루가 행복한 나날들이었다. 그러다 나는 여성주의를 만나게 되었다.

일단 나는 사과부터 했다. 내 몸을 괴롭히고 학대해 온 것에 대해 깊은 사과를 했다. 아니 분노부터 했던 것 같다. 왜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지 못하고 고통스럽게 굶어가며 다이어트를 해야 하는가. 모든 여자들에게 날씬하고 아름다울 것을 강요하는 매체들과 사회 인식에 분노하였다. 내 몸의 존재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열정적으로 일과 사랑을 했고, 먹고 싶은 대로 먹었고, 거기서 또 다시 에너지를 얻었다. 여성주의자로서, 여성주의적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 행복했다. 하지만

무언가 근본적 장애물을 넘지 못했는지 머리로는 '나를 긍정하고 내 몸을 사랑해야지' 라면서도 다시 살을 빼고 싶은 욕구가 커지기도 했다.

지금은 내 몸에게 사랑과 치유의 에너지를 보내는 것을 습관화하려 노력중이다. 또 다시 자신을 긍정하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살을 빼고, 사회가 인정하는 '정상인 여성상'의 범주에 들러 체중계의 숫자 하나하나에 울고 웃는 바보 같은 짓을 다시는 하고 싶지 않아서이다. 앞으로 무조건 굶거나 칼로리를 일일이 따져가며 먹는 것보다는 내 위가 고생하지 않고 행복하도록 영양이 있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먹도록 노력하고 실천할 것이다.



神

나는 그 곳!
<언니네 방>

神

나는 그 곳!

<언니네 방>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신선한 샐러드가 필요해
점심은 누구랑 먹지?

여학생 휴게실에 가볼까?
근데 거기가 어디더라?

뭐 재미있는 일은 없을까?
오늘은 공강 많은데

책도 많고 각종 파일, 화장품에 거울 기타등
짐이 너무 많아

가방은 뭐 들지?

오늘은 또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연세잡바?
다른 건 없을까?

방금 저 여학우는 누구더라?
인사는 해야하나? 뭐야...

시험엔 뭐가 나온대?

결석계는 받아 주실까?

고민
고민
하지마

당당하게 당신을 높이는

Ugirl



정후보 신나라(06)

부후보 김소영(06)

Ugirl

안녕하세요.

제 4대 여학생회 선본 U 高 girl 입니다.

신과대 여학우 여러분,

지하 일층 한 칸에 자리 잡은 물구나무실, 그리고 여학생회실을 보신 적이 있으시겠죠?

여러분에게 그곳은 어떤 의미인가요?

신과대 여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여학생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곳은, 그리고 여학생회는 여학생들이 가까이하기엔 먼, 무관한 공간입니다.

신과대 여학우 여러분,

여러분은 여성주의에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성이 여성주의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 몰라 먼 나라 이야기로만 인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신과대 여학우 여러분,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여 선배들과, 여 후배들과 소통하고 계시나요??

쉽게 다가서지 못했던 스스로의 잘못도 있겠지만 여 후배들과, 여 선배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굉장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많지 않은 수의 여학생들이지만 서로 잘 알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여자들만의 감칠맛 나는 수다- 참 그립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고 밥도 먹고 싶다는 작은 소망에,

여학생들이 좀 더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에,

몇 안 되는 신과대학 여학우들과 좀 더 끈끈한 유대감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에,

여학생회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성으로 대한민국에 산다는 것, 신학을 한다는 것,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평생을 함께 하고 싶은 친구들 만나는 것.

그것이 저희 U 高 girl 이 지향하는 여학생회입니다.

사실 여러분에 대해 너무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인사드리려고 하니, 조금은 민망하고 부끄럽기도 합니다. 앞으로 좀 더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함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세상으로 높이 뛸 수 있도록 함께하고,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에서 벗어나 솔직하고 당당하게, 나아가는 여학생회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좀 더 행복한 학교생활, 좀 더 따뜻한 학교생활,

U 高 girl 이 함께 하겠습니다.

아, 학교가기 싫다....



어디 쉴 데 없나ㅠㅠ

- 지하로 여휴 옮기기 -

겨울엔 뭐니 뭐니 해도 따뜻한 라지에이터,

아침에 한잔, 친구들과 이야기하며 한잔, 커피포트,

도시락도 싸왔어? 찬 밥은 먹기 싫다구?

여휴에 전자렌지 있잖아. 오늘도 한 끼 해결이네 짹!



오늘 밥은 누구랑 먹지ㅠㅠ
소영이는 수업갔는데..

- 정기적 다과회 -

밥 먹을 친구가 없다구? 고민고민하지마 girl~

한 달에 한 번씩 여학생들끼리 다과회를 한대.!

이젠 누구랑 밥 먹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

우리들의 만남의 장! 다. 과. 회. wow!

U girl

U girl

뭐 좀 재밌는일 없나....?



하늘공원!! 어때?

- 즐거운 피크닉 -

레포트 조모임 레포트 과외 시험 레포트 레포트...

아... 지겨워 뭐 재밌는 일 없을까?

벚꽃 피는 봄에는 피크닉 고고! 어디로 갈까?

윤중로? 한강? 하늘공원??

낙엽 지는 가을에는 potluck party- 재밌겠다 길길



전형적인 축제는 이제
그~마안!

-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축제의 장 -

틀에 박힌 축제는 이젠 진부해

뭔가 새로운 것이 없을까?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 우리 같이 생각해봐요^^

휴.. 오늘은 또 뭘 입지?



연잠입긴 좀 창피하고..

- 항상 입고싶은 티셔츠, 후디 제작 -

평소에 연잠이나 학교 티셔츠를 입긴 좀 그렇죠?

여학생들만의 감쪽한 암호!

함께 만드는 디자인, 그리고 나만의 문구.

게다가 이 모든 것이 **공짜!!** (스폰 예정)까악

노트북, 교재,,
다 어디다 넣어가지ㅠㅠ



- 내 맘대로 만드는 캔버스 가방! -

여러가지 스탬프로 캔버스 가방에 마음껏 찍어보아요.

훌륭한 기념품은 물론이고,

에브리데이 백으로도 일.석.이.조.



그 교수님은 시험은 뽐(+)로 몰아주나?

이젠 성적관리도 좀
해야하는데..



- 멘토-멘티 시스템 도입 -

여러분을 도와드릴 수 있는 멘토-멘티를 연결해 드립니다.
신과대 내에서 선배들과 챙겨주고,
도움받고, 상부상조하는 가족같은 프로그램

졸업하고 뭐해먹고 살지ㅠㅠ



- 각종 특강과 세미나 -

신학과 여학생으로 사회에 나가 뭘 하며 살아야 할지
고민되시죠?

신학공부와 더불어 미래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될
여러 인생 선배들을 초대해서 함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아요.

이제부터
솔직하게 당당하게
지금
이 순간

당당하게당신을높이는

U girl

U girl

함께 아름다운 선율을 부르는 칸타빌레

정후보 최하영 (신학 07)

제 46대 신과대 학생회 선거 정책자료집

Cantabile 노래하듯이

[음악에서 Canto(노래)를 형용사화한 말로 “노래하듯이” 라는 뜻]



꿈? 그게 어떻게 네 꿈이야, 움직이지 않는데
그건 별이지. 하늘에 떠 있는, 시도조차 못하는, 쳐다보지도 못하는 별.
지금 누가 황당무계 별나라 얘기하재?
니가 뭔갈 해야 될 것 아니야!
조금이라도 부딪히고, 애를 쓰고, 하다 못해 계획이라도 세워봐야
거기 니 냄새든 색깔이든 발라질 거 아니야!
그래야 네 꿈이다 말할 수 있는거지.

꿈을 이루라는 소리가 아냐, 꾸기라도 해보라는 거야.

- 베토벤바이러스 5화, 강마에가 강건우에게 -

베토벤 바이러스, 재미있게 보셨습니까?

베토벤 바이러스에 나오는 인물들은
하나같이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실력이 뛰어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성격에 결함이 있는 강마에와 함께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내던 그 장면들...
신과대 학생회를 준비하는 저희도,
분명히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함께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볼까 합니다.

함께 노래하듯이, 시작해볼까요?



제 46대 신과대학 학생회장 정후보
신학과 (07) 최하영

1988 전라남도 순천 출생
2004 순천매산여자고등학교 입학
2007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입학
2007-2008 종교극예술연구회 활동
2008 신과대 농활대장
2008 신과대 학생회장 입후보

찾아보기

Cantabile _ 노래하듯이

1. Da Capo _ 처음부터 다시

퍼즐의 2008년을 뒤돌아봅니다

2. Marcato _ 힘을 주어 똑똑하게

2008 학제개편, 그 이후는?
연세대학교 송도캠퍼스 이전, 신대는 어디로?

3. Regato _ 부드럽게

칸타빌레의 복지공약, 그 부드러움 속으로!

4. Animato _ 활기차게

신과대를 활기차게 만드는 학생회의 노력,
내년에도 계속됩니다!

5. A Tempo _ 본디 빠르기로

신앙수련회와 과제물 돌려받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을 찾아 누리기

Da Capo_ 처음부터 다시

수고하셨습니다!

부족함을 채워 완성되는 아름다움, 퍼즐

퍼즐 학생회에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1년 동안 학생회를 이끌어간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다양한 학생들의 요구와 기대를 충족시키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퍼즐은 지난 2007년 당선된 후 1년 간의 임기를 마무리지어갑니다. 학생회의 자리가 얼마나 큰 부담인지를 새삼 느껴보면서, 퍼즐의 1년 간의 활동에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하지만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입니다.

많은 행사들을 치러내면서 남았던 잡음들과, 학사제도 개편을 성급하게 진행하여 생겼던 문제점들. 그리고 지속적으로 학사제도 개편 논의를 하겠다는 이야기는, 언젠가부터 사라진 노력이 된 것 같아 아쉬웠습니다.

또한 얼마 전의 클럽 익명게시판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퍼즐이 절차의 문제에서 오류를 범한 것도 아쉬운 부분입니다.

학사제도 개편은 퍼즐이 준비하여 3월에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3월 수강신청 시의 공지 이후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 신과대의 모든 학우들이 명확한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이제 곧 졸업자들에게서 이로 인한 문제점들이 발견될 것이고, 피해는 학우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입니다.

신과대 학생회는 의결기구의 의결을 토대로 집행을 하는 기관입니다. 의결기구의 위상을 확립하고, 그 위상을 인정하는 것은 신과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인정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신과대 운영위원회의 위상을 명확히 세워주지 못한 점이 아쉽지만, 그에 대해 발빠른 사과를 한 점은 높게 평가합니다.

또한 정보의 공유가 부족했다는 것을 지적하게 됩니다. 신과대 운영위원회 속기록이 꾸준히 올리려는 노력을 했지만, 후반부에 조금 힘이 떨어진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속기록이 포함되어있지 않아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발언하셨던 송도와 관련한 사안이 논의되었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어 아쉽습니다.

이러한 아쉬움을 돌아보는 것은 퍼즐을 비난함이 아닙니다. 〈함께 부르는 아름다운 선율, 칸타빌레〉는 퍼즐의 활동을 바탕으로, 이어야 할 것을 이어가고 고쳐야 할 점을 고쳐나가며 학우들과 함께하는 학생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퍼즐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Marcato _ 힘을 주어 똑똑하게

2008 학사제도 개편, 얼마나 알고계신가요?

다음 질문에 OX로 답해보세요!

1. 현재 재적중인 모든 신과대 학생들의 전공필수과목 이수조건이 바뀌었다.
2. 07학번 학생들은 내년 개설될지도 모르는 신학의 이해를 듣지 않아도 된다.
3. 내년 신학의 이해 강의는 초대형 강의를 될 가능성도 있다.

알쏭달쏭, 어떻게 될지 잘 모르시겠죠?

지금 개편된 학사제도, 명확히 알려지지도 공지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당장 내년부터 어떤 사례가 나타날지 대비해야만 합니다.

신과대의 졸업요건이 1학기를 기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모든 신과대 학생은 신약, 구약, 신학의이해 (1), (2) 과목을 들으면
신과대 전공필수과목을 이수하게 됩니다.

45대 신과대 학생회에 따르면 현재 07학번 학생들은
2008년 1학기까지 전공필수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했을 때,
신학의이해 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1학년 때 3,4천단위 전공필수과목 들으신 분은 거의 없습니다.

어쩌면 2009년 2학기에는,
신학의이해 (2) 과목을 07,08학번이 함께 들어야 해서
100명이 넘는 대형강의가 탄생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칸타빌레가 이렇게 준비합니다!

1. 친절한 이수요건표 씨!

- 바뀐 학사제도를 기초로 한 신과대의 새로운 졸업요건표를 배포하여 신과대 학우들이 힘들게 졸업요건을 계산하고 고민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신학의이해 (2) 과목 해결책 마련!

- 07,08학번 학우들이 콩나물시루같은 교실에서 수업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대체과목확보, 신학의이해 (2) 과목의 분반 증설에 힘쓰겠습니다.

3. 지속적인 감시와 긍정적인 변화!

- 학우들이 지적해주시는 사항들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연세대학교의 송도시대, 신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연세대학교가 2010년에 송도로 이사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학생들에게 공개된 정보는 적고,
많은 루머들이 출처없이 퍼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과대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될까요?
언더우드 국제학부가 이사를 가면 신학관은 어떻게 변할까요?
혹시... 신과대도 송도로 이사가는 명단에 포함되어 있을까요?

2008년에 열린 28차 중앙운영위원회의 속기록을 살펴보면,
신과대회장님의 송도 이전 가능성에 대한 발언이 있습니다.
물론 뜬소문일지도 모르지만 사실이라면 준비해야 합니다.

중운위에서의 신과대회장님의 발언에
“신대의 송도 이전에 암묵적인 동의가 있다”
는 내용이 들어있으니 더더욱 준비해야 합니다.

칸타빌레가 이렇게 준비합니다!

1. 신과대 교수님과의 지속적인 소통

- 신과대가 연세대학교 송도캠퍼스 이전문제에 어떻게 관여되고 있는지를 교수님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학생들에게 명확히 밝히겠습니다.

2. 송도 이전 관련 학생모임 개최

- 위에서 확인하는 사실관계들을 가지고 학생들이 다 함께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학생모임을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여기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학생회의 입장을 내고, 학생들이 원하는 모습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Regato _ 부드럽게

신과대의 복지사안,
깊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겠지요?

동아리방에 사람이 없어서 썰렁해끼기
re : 아니야, 동아리방이 썰렁해서 사람이 없는거야끼기

공부하다보니 답답하다...
시원하게 땀흘리고 싶은데
마땅한 운동이 없다...
그래, 관두자

갑자기 다쳤다
갑자기 아프다
그런데 약이 없다
어쩔 수 없다
신대는 그런 곳이니까

난...
화장실 다녀왔을 뿐이고!
나도 모르는 새에 모기 물려있고!
긁다보니 피나고 있고!
엄마 보고싶을 뿐이고!

칸타빌레가 이렇게 준비합니다!

1. 동아리 난방시스템, 자주 가동해주세요!
- 따뜻한 동아리실을 위해서, 찾아가고 싶은 동아리실을 위해서 난방시스템을 자주 가동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2. 신과대 지하 모기 방역!
- 모기를 완벽히 방역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지하 구석구석 숨어있는 장소들, 특히 물이 고여서 모기의 온상이 되는 신대 지하의 장소들에 대한 방역을 요청하겠습니다.
3. 줄넘기, 농구공, 배드민턴 대여!
- 이제 포기하지 마세요! 학생회에서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운동용품을 대여해드립니다. 단, 반납은 필수입니다!
4. 의약품 구비!
- 간단한 상비약도 없는 신대, 열린 학생회실에 소화제, 감기약, 두통약, 연고, 밴드 등을 구비하겠습니다.

신과대의 복지사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겠죠?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란데,
가계곤란 장학금은
성적순인가요? 신청순인가요?

편입해서 학교에 왔는데
정보 얻는 것도 알아서
친해지는 것도 알아서
누군가 도와줬으면...

조모임 조장하느라 빈 강의실을 찾는데
아불싸, 이건 뭐 열린 강의실이 없어

등록금 내는 것도 뻘뻘한 우리집
교재 사려니 한숨이 절로
부모님께 손 벌리려니
부모님은 다시 한숨이 절로

칸타빌레가 이렇게 준비합니다!

1. 장학금선정 기준 공개를 요구하겠습니다!

- 지금의 선정기준을 믿지 못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장학금의 선정 기준을 알아야지만 많은 학우들이
다음학기를 잘 준비할 수 있습니다.

2. 지하 강의실 학생회가 관리하겠습니다!

- 사무실에 가서 신청서 쓰기 귀찮으셨죠? 게다가 일주일 전
신청하지 않으면... 어휴... 신과대 학생회실에서 이용료 없이
강의실 이용하실 수 있도록 편안히 모시겠습니다.

3. 교재 벼룩시장을 열겠습니다!

- 매년 늘어나는 교재 구입비, 하지만 한 학기만 쓰게 되죠?
방에 쌓여 있는 교재를 싸게 사고 파는 시장을 열겠습니다.

4. 편입생을 위한 OT를 기획하겠습니다!

- 편입생협의회가 구성되지 않더라도, 새로 입학하는 편입생
들이 학교에 관한 제반사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학교 전체
편입생 OT 날짜에 OT를 열겠습니다.

Animato - 활기차게

신대를 생동감이 넘치는 공간으로!
함께 웃고 즐기는 신과대를 만들자!

최근 몇 년간 신과대 지하는 소외된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조용한 동아리실에는 발걸음을 들여놓기가 민망해집니다.
지하 로비는 모르는 사람들로만 가득해져있습니다.
신과대에서 이용하는 공간은 강의실, 화장실... 또 없는건가요?

우리 학번, 뭉친지 너무 오래되지 않았나요?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도 시간이 맞지 않고,
생활이 빠듯해서 MT 한 번 가기도 어려워졌습니다.
그래도 같이 지내며 놀며 웃던 시간들 되찾고 싶은데...

신과대가 함께 하는 축제는 5월, 9월에 있습니다.
하지만 참여한 프로그램은 몇 개...?
신과대 학생이라면 마음놓고 즐길만한 그런 축제 없을까요?

꼭 축제기간이 아니더라도,
신과대에 '놀러' 올 수는 없는걸까요?
기대되고, 웃게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해요!

칸타빌레가 이렇게 준비합니다!

1. 활기찬 동아리실, 늘어나는 새내기들!
- 지저분해진 동아리실, 이제 청소를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새내기OT기간에 실시되는 동아리방 경연대회!
새내기들이 동아리방을 돌아보며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동아리실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합니다!
2. 학번이여, MT를 즐겨라!
- 오래동안 뭉치지 못한 동기들과 MT를 떠나보세요!
일정한 요건만 갖추신다면, 숙소비를 학생회가 씁니다!
3. 신과대 축제를 내실화합니다!
- 신과대 학생이라면 누구나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축제!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시간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신과대에 "놀러와!"
- 신과대에서 열리는 수많은 놀이대회!
매달 열리는 쉽고 재미있는 대회들로 놀러오세요!

A Tempo _ 본디 빠르기로

학교생활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줄,
이제껏 놓치고 있었던 당연한 권리찾기!

초등학교 저학년 때의 일기장을 들여다보면 새로운 마음이 듭니다.
나의 뽀뽀뽀글씨도 재미있지만 선생님의 빨간글씨도 좋았지요.
그렇게 선생님께서 꼼꼼히 읽어주시고 적어주셨던 말씀들이 생각납니다.

하지만 중-고-대학을 거치면서 이런 경험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열심을 다한 레포트를 제출하고 나면,
왜 이런 점수를 받았는지도 알 수 없는 학점이 나올 때 까지
내가 다한 열심에 대한 평가를 받을 수 없지요.

신앙수련회는 항상 '계륵'입니다.
신앙수련회를 포기하자니 신과대 친구들과의 시간이 아쉽고,
다른 수업을 포기하자니 결석계 인정이 되지 않는 수업이 많고,
신앙수련회를 가자니 생계를 위한 과외와 알바가 발목을 잡습니다.
가정의 중요한 행사라도 겹치게 되면 갈 수 없는 상황도 생기게 되죠.

칸타빌레가 이렇게 준비합니다!

1. 신과대 수업 과제 돌려받기 캠페인!

- 교수님들께서 우리가 제출한 과제물을 돌려주실 수 있도록, 학우들과 함께 캠페인을 벌이겠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나의 모자란 점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삶도 더욱 깊어질 수 있을테니까요!

2. 신앙수련회를 디자인하라!

- 신앙수련회에 대한 논의는 예전부터 신과대의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이제 이 논의를 본격화하고 학생들의 논의를 통해 좋은 대안을 마련하고 현실화시키는 데 힘을 쏟겠습니다.



담으며...

여기에 담지 못한

저희들의 이야기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아직은 듣지 못한

여러분의 이야기들도 아직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 이야기들을 함께 오선지 위에 담으며,

더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갔으면 합니다.